

# 코로나19 발생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 조사

## I. 머리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확진자 발생일은 2020년 1월 20일이며, 2020년 6월 10일 0시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11,902명, 사망자는 276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2020년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체제로 전환되었다. 한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는 매월 외식산업통계를 발표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20년 6월 외식산업통계에 의하면 경기동향에서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월별조사)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음식점업체감은 2020년 4월에 소상공인의 음식점업체감은 77.0, 전통시장의 음식점업체감은 79.9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외식업계 영향 모니터링 조사(6차) 결과발표에 의하면 외식업체 582곳을 대상으로 4월 6일~10일 총 5일간에 걸쳐 방문 및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일평균) 고객수’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외식업체의 80.8%에서 고객 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매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의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서비스업생산지수 업종별 전년동월비 비교에서 숙박 및 음식점은 24.5%감소했다.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은 전월비 13.2% 증가했으나 동월비 19.9%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에 따른 코로나19 이전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와 코로나19 이후의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 II. 자료 및 분석 방법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자 116명을 임의 선정하여 총 표본 수 116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조사 지역은 부산이며, 조사시기는 2020년 5월 14일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조사자의 현지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담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 배달음식 및 외식비 지출 변화, 배달음식 및 외식비 종류별 지출 금액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져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지출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때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을 채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와 배달음식 주문과 외식비 지출변화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4월 한달 간의 종류별 배달 및 외식음식 지출과 코로나19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배달과 외식의 지출 변화와 종류별 배달 및 외식 지출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이전 배달음식 및 외식 지출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 지출을 비교하여 지출변화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검정방법으로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 Ⅲ. 분석 결과

(i)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표 1>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의 48.3%가 남성, 51.7%가 여성이고, 연령은 20대가 56.9%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형태는 아파트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원 수는 4명이 45.7%로 가장 많이 조사됐다. 또한 4월 한 달 동안 생활비(식료품비, 각종 생활용품 구입비 등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총계)로 지출한 금액은 응답자의 20.7%가 150~199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	56	48.3
	여	60	51.7
연령	20대	66	56.9
	30대	8	6.9
	40대	11	9.5
	50대	20	17.2
	60대	9	7.8
	70세 이상	2	1.7
가구형태	원룸	15	12.9
	기숙사	1	0.9
	아파트	78	67.2
	빌라	16	13.8
	개인주택	5	4.3
	기타	1	0.9
가구원 수	1명	25	21.6
	2명	13	11.2
	3명	18	15.5
	4명	53	45.7
	5명 이상	7	6
4월 생활비 지출액	49만원이하	3	2.6
	50~99만원	14	12.1
	100~149만원	20	17.2
	150~199만원	24	20.7
	200~299만원	21	18.1
	300~399만원	20	17.2
	400만원 이상	14	12.1
합계		194	100

(ii)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와 배달음식주문과 외식비 지출변화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주의도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매우 주의한 사람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주의한 사람은 40.5%, 평상시 대로 한 사람은 6.9%로 뒤를 이었으며, 주의하지 않거나 전혀 주의하지 않은 사람은 0%로 집계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월 배달음식 주문과 외식비 지출변화는 <표 3-1>와 같다. 코로나 발생이전과 비교하여 4월 배달음식 주문 변화는 차이 없음이 60.3%, 증가가 33.7%, 감소가 6%로 집계되었고, 외식비 지출 변화의 경우 차이없음이 50.9%, 감소가 37.9%, 증가가 11.2%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 및 외식 지출 변화의 증감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3-2>와 같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증가율은 31.54%, 배달음식 주문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감소율은 38.57%로 집계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외식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증가율은 25.00%, 외식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감소율은 44.32%로 집계되었다.

<표 2>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주의	조금 주의	평상시 대로 했음	주의하지 않음	전혀 주의하지 않음	계	평균척도
주의도	61 (52.6)	47 (40.5)	8 (6.9)	0 (0)	0 (0)	116 (0)	1.54

<표 3-1> 평상시(코로나 발생 이전)와 비교하여 4월 배달음식주문과 외식비 지출 변화

단위 : 명(%)

구분	감소	증가	차이 없음	계	평균척도
배달음식 주문 변화	7 (6.0)	39 (33.7)	70 (60.3)	116 (100.0)	2.54
외식비 지출 변화	44 (37.9)	13 (11.2)	59 (50.9)	116 (100.0)	2.13

<표 3-2>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 및 외식지출변화 증감율

구분	평균(%)
배달감소율	38.57
배달증가율	31.54
외식감소율	44.32
외식증가율	25.00

(iii)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에 따른 배달음식주문과 외식비 지출변화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에 따른 배달음식주문과 외식비 지출변화를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면 <표 4>과 같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배달지출변화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 가장 많고 그 뒤로 증가했다고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우 주의했거나 조금 주의한 인원들은 차이없음, 증가, 감소 순서대로 결과가 나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에 평상시대로 한 사람들은 차이없음이 62.5%로 가장 많았고,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0% ,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5%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이후 외식지출변화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뒤로 감소했다고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우 주의한 사람은 외식비지출변화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4.3%로 가장 많았고 차이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1.0%,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4.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에 평상시대로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차이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5.0%로 가장 많았으나, 감소했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12.5%로 똑같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이후 배달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매우 주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36.0%가 해당되어 가장 높았고, 코로나19이후 외식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매우 주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44.3%가 해당되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에 따라 배달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율과 외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사회적 거리두기를 매우 주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코로나19이후 배달 및 외식 지출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주의했음		조금 주의했음		평상시대로 했음	
	배달지출변화	외식지출변화	배달지출변화	외식지출변화	배달지출변화	외식지출변화
감소	4 (6.6)	27 (44.3)	1 (2.1)	16 (34.0)	2 (25.0)	1 (12.5)
차이없음	35 (57.4)	25 (41.0)	30 (63.8)	28 (59.6)	5 (62.5)	6 (75.0)
증가	22 (36.0)	9 (14.7)	16 (34.0)	3 (6.4)	1 (12.5)	1 (12.5)
계	61 (100)	61 (100)	47 (100)	47 (100)	8 (100)	8 (100)
평균척도	2.29	1.70	2.31	1.72	1.87	2

(iv)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에 따른 배달음식주문과 배달 및 외식비 지출변화 교차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에 따른 배달음식주문과 배달 및 외식 지출변화 교차분석은 <표 4-2>와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와 배달음식주문 지출변화, 사회적거리두기 주의도와

외식 지출변화 모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사회적 거리두기주의도에 따른 배달 및 외식 지출변화 교차분석

	카이제곱	p-value
배달지출변화	7.347	0.119
외식지출변화	6.657	0.155

(v)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배달평균지출액 분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배달평균지출액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5>과 같다.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배달평균지출액 차이는 남성이 0.82(만원), 여성이 0.49(만원)으로 남성이 더 증가하였다. 연령대별 코로나 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배달평균지출액 차이는 60대 이상이 0.73(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 코로나 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배달평균지출액 차이는 1인가구가 0.64(만원), 다인가구는 0.65(만원)으로 다인가구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월 생활비 지출액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배달평균지출액 차이는 400만원 이상이 1.22(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이후 배달평균지출합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5-2>와 같다. 가구형태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평균지출합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성별, 연령별, 4월 생활비 지출액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배달평균지출액 특성

단위 : 만원

특성	구분	계	
		이전배달평균지출액	이후배달평균지출액
성별	남	4.68	5.50
	여	5.76	6.25
연령	20대	4.59	5.23
	30대	8.25	8.75
	40대	7.23	8.73
	50대	6.30	6.50
	60대 이상	3.09	3.82
가구형태	1인 가구	5.60	6.24
	다인 가구	5.14	5.79
4월 생활비 지출액	100만원 미만	3.59	4.29
	100~200만원	5.70	5.95
	200~299만원	5.17	6.79
	300~399만원	4.45	5.10
	400만원 이상	7.07	8.29

<표 5-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이후 배달평균지출합계 교차분석

	카이제곱	p-value
성별	13.080	0.219
연령대	45.50	0.654
가구형태	24.122	0.007
4월 생활비 지출액	35.062	0.692

(vi)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외식평균지출액 분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외식평균지출액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외식평균지출액 차이는 남성이 -1.02(만원), 여성이 -1.42(만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감소하였다. 연령대별 코로나 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외식평균지출액 차이는 30대가 -3.75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가구형태별 코로나 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외식평균지출액 차이는 1인가구가 -0.36(만원), 다인가구가 -1.46(만원)으로 다인가구가 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4월 생활비 지출액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외식평균지출액 차이는 300~400만원이 -2.2(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평균지출합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6-2>와 같다.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4월 생활비 지출액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외식평균지출액 특성

특성	구분	계	
		이전외식평균지출액	이후외식평균지출액
성별	남	4.64	3.62
	여	5.85	4.43
연령	20대	3.94	3.17
	30대	9.25	5.50
	40대	8.18	5.73
	50대	7.60	5.55
	60대 이상	3.18	3.82
가구형태	1인 가구	5.44	5.08
	다인 가구	5.21	3.75
4월 생활비 지출액	100만원 미만	3.35	3.29
	100~200만원	5.36	4.27
	200~299만원	5.71	3.71
	300~399만원	5.65	3.45
	400만원 이상	6.07	5.57

<표 6-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이후 외식평균지출합계 교차분석

	카이제곱	p-value
성별	10.761	0.292
연령대	46.122	0.426
가구형태	9.674	0.378
4월 생활비 지출액	33.867	0.570

(vii) 종류별 배달음식주문과 외식비 지출 금액

코로나19 발생 이후 4월 종류별 배달음식 평균지출과 총지출은 <표 7-1>와 같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16명을 대상으로 4월 종류별 배달음식 총지출은 치킨이 226만원대로 가장 지출이 많았으며, 피자가 95만원대, 한식이 91만원대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지출된 종류의 배달음식은 분식과 햄버거로 80만원대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월 종류별 외식음식 평균지출과 총지출은 <표 7-2>와 같다. 코로나19 발생이후 116명을 대상으로 4월 종류별 외식음식 총지출은 한식점이 187만원대로 가장 지출이 많았으며, 중식점이 87만원대, 패스트푸드점이 69만원대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지출된 종류의 외식음식은 패밀리레스토랑은 41만원대로 집계되었다.

<표 7-1> 코로나19 발생 이후 4월 종류별 배달음식 평균 및 총지출

	평균(만원)	총합(만원)
분식	0.69	80.04
치킨	1.95	226.2
피자	0.82	95.12
햄버거	0.69	80.04
중식	0.71	82.36
한식	0.79	91.64

<표 7-2> 코로나19 발생 이후 4월 종류별 외식음식 평균 및 총지출

	평균(만원)	총합(만원)
분식점	0.53	61.48
한식점	1.62	187.92
중식점	0.75	87
패스트푸드점	0.60	69.6
패밀리레스토랑	0.36	41.76

(viii) 4월 배달음식주문과 외식비 지출 변화에 따른 종류별 배달 및 외식 평균지출

평상시(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월 배달음식주문변화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과 증가했다고 응답한사람, 평상시(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월 외식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과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종류별 배달 및 외식음식 평균지출액은 <표 8-1>, <표 8-2>와 같다. 코로나 19발생 이후 배달감소 응답자와 배달증가 응답자의 종류별 평균지출액은 분식의 경우 배달증가 응답자가 배달감소 응답자보다 0.77

(만원) 더 지출하였다. 치킨의 경우 배달증가 응답자가 배달감소 응답자보다 2.12(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피자의 경우 1.46(만원) 더 지출하였다. 햄버거의 경우 배달증가 응답자가 배달감소 응답자보다 1.66(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중식의 경우 0.61(만원), 한식의 경우 2.03(만원) 더 지출하였다. 이를 통해 배달증가 응답자와 배달감소 응답자는 치킨에서 가장 평균 지출액의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감소 응답자와 외식증가 응답자의 종류별 평균지출액은 분식점의 경우 외식증가 응답자가 외식감소 응답자보다 1.28(만원) 더 지출하였고, 한식점의 경우 0.35(만원) 더 지출하였다. 중식점의 경우 외식증가 응답자가 외식감소 응답자보다 1.25(만원) 더 지출하였고,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0.72(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 0.36(만원) 더 지출하였다. 이를 통해 외식증가 응답자와 외식감소 응답자는 분식점에서 가장 평균지출액의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8-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감소 및 배달증가 응답자의  
종류별 배달음식 지출평균액

단위 : 만원

구분	분식	치킨	피자	햄버거	중식	한식	코로나19 이후합계
배달감소 응답자	1.00	1.57	0.57	0.29	1.29	0.00	3.29
배달증가 응답자	1.77	3.69	2.03	1.95	1.90	2.03	9.87

<표 8-2>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감소 및 외식증가 응답자의  
종류별 배달음식 지출평균액

구분	분식점	한식점	중식점	패스트 푸드점	패밀리 레스토랑	코로나19 이후합계
외식감소 응답자	0.57	2.57	0.98	0.66	0.41	3.77
외식증가 응답자	1.85	2.92	2.23	1.38	0.77	7.15

(ix) 평상시(코로나 발생 이전)와 비교하여 4월 배달음식 및 외식 지출 변화 대응표본검정 <표 9-1>, <표 9-2>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배달음식 및 외식지출과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배달음식 및 외식지출의 차이를 대응표본통계량을 구한 후,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배달음식지출변화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표본을 116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배달음식 평균지출액은 5만 2410원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음식 평균지출액은 5만 8900원으로 증가되었다. 귀무가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배달음식 지출에 변화가 없다.”로 설정하고 대립가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배달음식 지출에 변화가 있다.”라고 설정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값은 -2.900으로 임계값인 -1.96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95%의 확률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배달음식지출의 변화는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 외식지출변화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표본을 116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코로나이전에 외식음식 평균지출액은 5만 2410원으로, 코로나이후에 외식음식 평균지출액은 5만 8900원으로 측정되었다. 귀무가설이 “코로나이전과 이후 외식음식지출의 변화가 없다.”인 반면, 대립가설은 “코로나이전과 이후 외식음식지출의 변화가 있다.”이다.

t값이 -1.96보다 작거나 1.96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t값은 -2.900으로 -1.96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95%의 확률로 코로나이전과 이후 외식음식지출의 변화는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9-1> 코로나이전과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지출 대응표본통계량

구분		평균(만원)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상관계수	유의확률
배달 지출 변화	코로나19이전	5.241	116	4.956	0.460	0.913	0.000
	코로나19 이후	5.890	116	5.823	0.541		
외식 지출 변화	코로나19 이전	5.267	116	6.461	0.599	0.709	0.000
	코로나19 이후	4.040	116	4.715	0.438		

<표 9-2> 코로나이전과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지출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 률(양측)
	평균(만원)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코로나19 이전배달 - 코로나19 이후배달	-0.646	2.401	0.222	-1.088	-0.204	-2.900	115	0.004
코로나19 이전외식 - 코로나19 이전외식	1.224	4.558	0.423	0.385	2.062	2.892	115	0.005

## IV. 결 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외식업계 영향 모니터링 조사(6차) 결과발표에 의하면 방문 및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일평균) 고객 수’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외식업체의 80.8%에서 고객 수가 감소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코로나19 이전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와 코로나19 이후의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빈도분석을 채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와 배달음식 주문과 외식비 지출변화를 파악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4월 한 달 간의 종류별 배달 및 외식음식 지출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전 배달음식 및 외식 지출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 지출을 비교하여 지출변화가 있는지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도는 매우 주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2.6%로 가장 많았다. 4월과 비교하여 5월 배달음식과 외식비 지출변화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월 배달 음식주문과 외식비 지출 변화는 다음과 같다. 배달음식 지출 변화와 외식비 지출 변화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배달음식 지출변화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 뒤를 이은 반면, 외식비 지출변화는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4월 배달 음식주문과 외식비 지출 변화의 증감률은 다음과 같다. 배달음식 지출변화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평균 32.31%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배달음식 지출변화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평균 45%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외식비 지출의 경우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평균 29.55%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외식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평균 48.81%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이후 배달평균지출합계는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배달평균지출액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증가하였다. 연령대별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배달평균지출액 차이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배달평균지출액 차이는 다인가구가 근소하게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월 생활비 지출액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배달평균지출액 차이는 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이후 배달평균지출합계 교차분석 결과는 가구형태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평균지출합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형태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평균지출합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을 때 “가구형태별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평균지출합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성별, 연령별, 4월 생활비 지출액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이후 외식평균지출합계는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외식평균지출액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감소하였다. 연령대별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외식평균지출액 차이는 30대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외식평균지출액 차이는 다인가구가 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4월 생활비 지출액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이전의 외식평균지출액 차이는 생활비 지출액이 300~400만원인 사람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평균지출합계 교차분석 결과는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4월 생활비 지출액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월 종류별 배달음식 총지출은 치킨이 가장 지출이 많았으며, 피자가 9, 한식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지출된 종류의 배달음식은 분식과 햄버거로 집계되었다. 코

로나19 발생이후 4월 종류별 외식음식 총지출은 한식점이 가장 지출이 많았으며, 중식점이, 패스트푸드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지출된 종류의 외식음식은 패밀리레스토랑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 19발생 이후 배달감소 응답자와 배달증가 응답자의 종류별 평균지출액에서의 차이는 치킨에서 가장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발생 이후 외식감소 응답자와 외식증가 응답자의 종류별 평균지출액에서의 차이는 분식점에서 가장 평균지출액의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에 따른 코로나19 발생이전과 코로나19 발생이후 4월 한 달동안의 배달음식 주문 및 외식비 지출변화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지출변화는 95%의 확률로 변화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 외식음식지출변화는 95%의 확률로 변화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는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송요성, 명노섭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산업활동, P23, P26, 2020

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20년 6월 외식산업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식업계 영향 모니터링 조사(6차) 결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음식 및 외식 소비실태 조사

본 조사는 코로나19이후 배달음식 주문 및 외식비 지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아래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윤요섭 (전화: 010-9138-9471, imyoseob@pusan.ac.kr)

1. 귀하의 성별은?( )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대는?( )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⑦70대 이상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형태는?( ) ①원룸 ②기숙사③아파트④빌라⑤개인주택 ⑥기타
4. 본인을 포함해서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는? 총( ) 명
5. 본인을 포함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전체가 4월 한달 동안 생활비(식료품비, 각종 생활용품 구입비, 교통요금, 월세, 미용료 등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총계)로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  
①49만원이하 ②50~99만원 ③100~149만원 ④150~199만원 ⑤200~ 299만원  
⑥300~399만원 ⑦400~499만원 ⑧500~599만원 ⑨600~999만원 ⑩1000만원 이상
6. 사회적 거리두기는 금년 3월 말 시행되어 5월 초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  
① 매우 주의했다 ② 조금 주의했다 ③ 평상시대로 했다. ④ 주의하지 않았다 ⑤ 전혀 주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지난 4월과 비교하여 5월 현재 배달음식 주문과 외식비 지출(일주일 평균치 기준)에 어느정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7. 4월에 비교해서 5월 현재 배달음식 주문에 따른 지출 변화는?( ) ①감소 ②증가 ③차이 없음
8. 4월에 비교해서 5월 현재 외식비 지출 변화는?( ) ① 감소 ② 증가 ③ 차이 없음

다음은 평상시보다(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금년 2월 이전)과 비교하여 4월에 배달음식 주문과 외식비 지출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9.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상시보다 코로나19이후 배달음식 주문으로 지출한 금액 변화는? ( )  
① 감소하였다 ② 증가하였다 ③ 차이가 없다
- 9-1.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했다면, 평소보다 몇 퍼센트 증가하였습니까? 평소보다 ( )%증가
- 9-2. 배달음식 소비가 감소했다면, 평소보다 몇 퍼센트 감소하였습니까? 평소보다 ( )%감소
10. 코로나19이후 한 달 동안(4월 1일~30일) 종류별로 주문한 배달음식 지출 금액은?

	분식	치킨	피자	햄버거	중식	한식
0원						
1만원미만						
1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이상						

\*지출금액은 1인 기준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1.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상시보다 코로나19이후 외식비로 지출한 금액 변화는?( )

① 감소하였다. ② 증가하였다 ③ 차이가 없다

11-1. 외식으로 지출이 증가했다면, 평소보다 몇 퍼센트 증가하였습니까? 평소보다 ( )%증가

11-2. 외식으로 지출이 감소했다면, 평소보다 몇 퍼센트 감소하였습니까? 평소보다 ( )%감소

12. 코로나19이후 한 달 동안(4월 1일~30일) 종류별로 외식비 지출 금액은?

	분식점	한식점	중식점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0원					
1만원미만					
1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이상					

\*지출금액은 1인 기준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